

국내 뉴스

1. 대한항공, 8년 만에 '신용등급 A' 복귀



대한항공이 8년 만에 신용등급 A로 복귀했다. 단단한 기초체력이 시장 안팎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견조한 영업실적과 안정된 재무적 지표가 신용등급 향상을 이끄는 한편,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인 ESG 평가에서도 4년 연속 통합등급 A를 받았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한국신용평가에서 자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높였다. 2015년 12월 이후 8년만의 A 등급 복귀다.

대한항공의 신용등급 향상은 ▲주력 부문인 국제선 여객사업의 공고한 정상화 흐름 ▲화물시황 둔화, 고유가 등 비우호적 외부변수에도 양호한 이익창출력 유지 ▲재무 여력 확충 및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도 크게 개선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용등급 향상에 따라 새로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한편, 회사채 발행 등 자본조달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재무적 펀더멘탈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재무적 체력도 갖췄다는 평가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상장기업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평가 및 등급에서 4년 연속 '통합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체제, 중장기 배당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 준법경영 강화, 지역사회 상생 도모, 소비자 권익 및 정보보호,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과 기업문화 정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S) 부문인 경우 A+로 지난해 대비 한 단계 등급이 올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최대 ESG 평가 및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2. 진에어, 한국ESG기준원 평가 통합 A 획득



진에어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3년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향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평가 3개 부문에서 모두 A를 기록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2단계가, 사회 부문은 B+에서 A등급으로 1단계가 개선됐다. 지배구조 부문은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통합 등급 상승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의 녹색 경영,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소비자 중심의 안전 경영 등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목표 및 전략 구축 △친환경 구매 실적 △안전보건 정책 공개 및 평가 △공정은행 관행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에어는 반려해변 입양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등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또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금 현금 결제, 정기 회의 개최, 우수 협력사 항공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저비용항공사 중 유일하게 A등급을 유지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내에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항공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위원회, ESG 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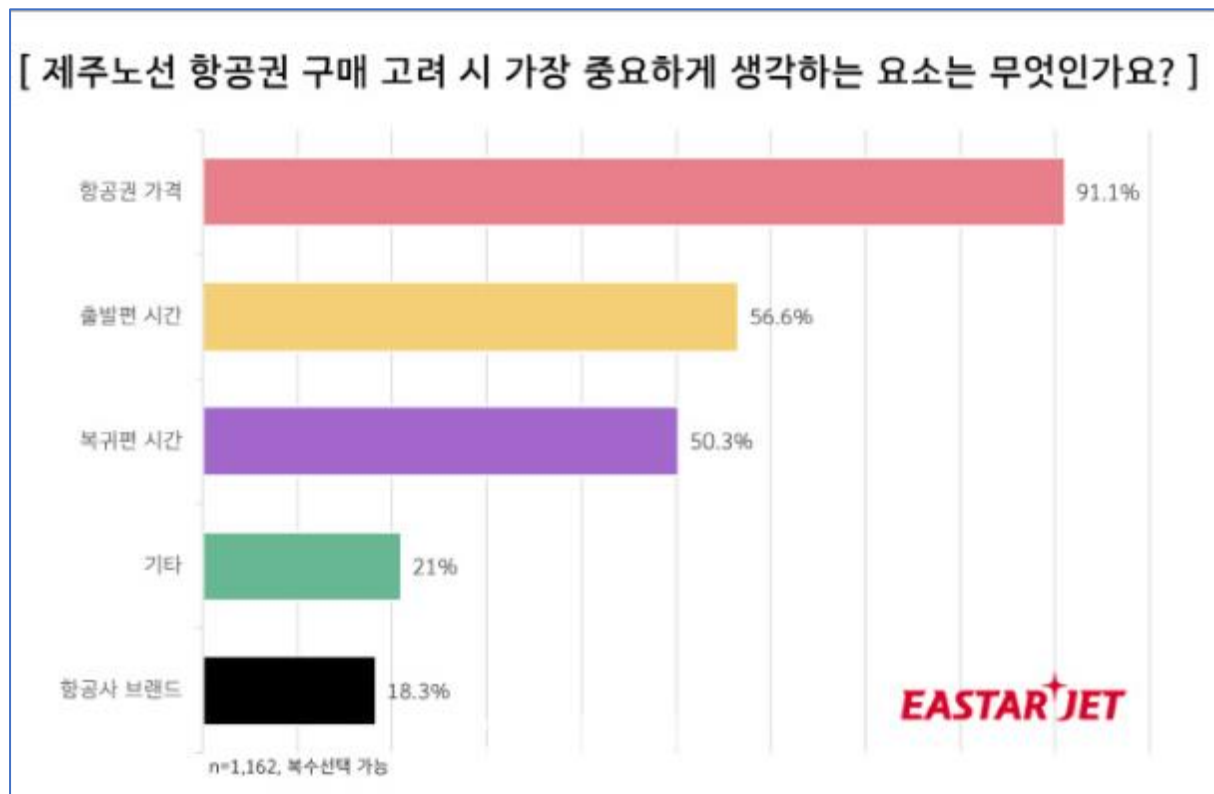
진에어는 "전사적으로 ESG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역할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3. 이스타항공 “제주 항공권 선택 기준·만족 요소 1위는 가격”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탑승객 100 만명 돌파를 기념해 진행한 ‘제주노선과 제주여행 이용 경험’ 설문조사에서 항공권 선택 기준과 만족 요소 1 위는 모두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 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 월 28 일부터 10 월 21 일까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162 명이 참여했다. 이스타항공은 고객 설문 결과를 토대로 고객경험 개선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제주노선 이용자의 항공권 구매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운임과 관련된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항공권 검색 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79.8%)'와 '프로모션 광고를 보고(13.3%)'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비중이 높았다.

이스타항공의 제주노선 이용 시 만족 요인을 묻는 질문에도 합리적인 가격(81.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친절한 기내 서비스(35.8%)와 이착륙 시간 준수(22.6%), 쾌적한 기내 환경(22.4%) 등 서비스와 환경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곳을 묻는 질문에는 항공사 홈페이지라고 답한 비율이 57.9%로 여행사(25.6%), 여행플랫폼(1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설문 참여자의 83.2%가 항공사의 홈페이지 특가 프로모션을 '합리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고, 특가 항공권 구매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했다는 비율이 56.5%에 달했다.응답자는 253(54.9%)명으로 제주노선 이용자의 절반을 넘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4. 대한항공, 에어버스 A321네오 20대 추가주문...“현대화 박차”



대한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의 A321네오(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A321네오 항공기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단일 통로) 소형 항공기다. 180도로 펼쳐지는 8석의 프레스티지 좌석을 장착했다.

아시아 지역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의 객실 인테리어 브랜드인 '에어스페이스 인테리어'와 기내 와이파이 등 편의 사양을 갖췄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이 누적 주문한 A321네오 항공기는 50대로 늘어나게 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주문한 A321네오 50대 중 8대를 인도받아 작년 12월부터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유종석 대한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오퍼레이션(운영) 부문 부사장은 "A321네오는 탄

소배출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방향에 완전히 부합하는 항공기"라며 "현대적 디자인, 최첨단 기술, 편안한 기내 공간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여행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A321네오 추가 주문을 포함해 보잉787-9 10대, 보잉787-10 20대, 보잉 737-8 30대 등 모두 110대의 신형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A330 6대, 보잉777-200ER 6대 등의 연식이 오래된 '경년기'는 순차 퇴역시켜 보유 항공기의 현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5. 에어서울, 위탁수하물 개수 제한 폐지...무계별 요금제 적용



에어서울은 수하물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무계별 요금제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변경된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은 가방의 개수 제한 없이 최대 15kg이다. 변경된 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최대 무게는 개정 전과 동일하지만,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 수하물의 무게를 합산해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객들의 편의도 높아졌다. 위탁수하물 무게를 추가할 때도 기존에는 수하물 1개(최대 15kg) 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게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구매 시 5kg, 공항 현장 구매 시 1kg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상세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 초과 수하물을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국내선 항공편도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kg당 8천원이다.

변경된 수하물 규정은 에어서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6.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 가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반대 요인으로 화물사업의 독과점 우려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안건 의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어 대한항공이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참석 이사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문을 분리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이로써 화물사업의 분리매각이 결정됐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 10월 30일 8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만큼 이날도 마라톤 회의 가능성이 점쳐졌다. 찬성측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속한 기업결합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반대측은 주력 사업의 매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표결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대립했던 만큼 이날 이사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결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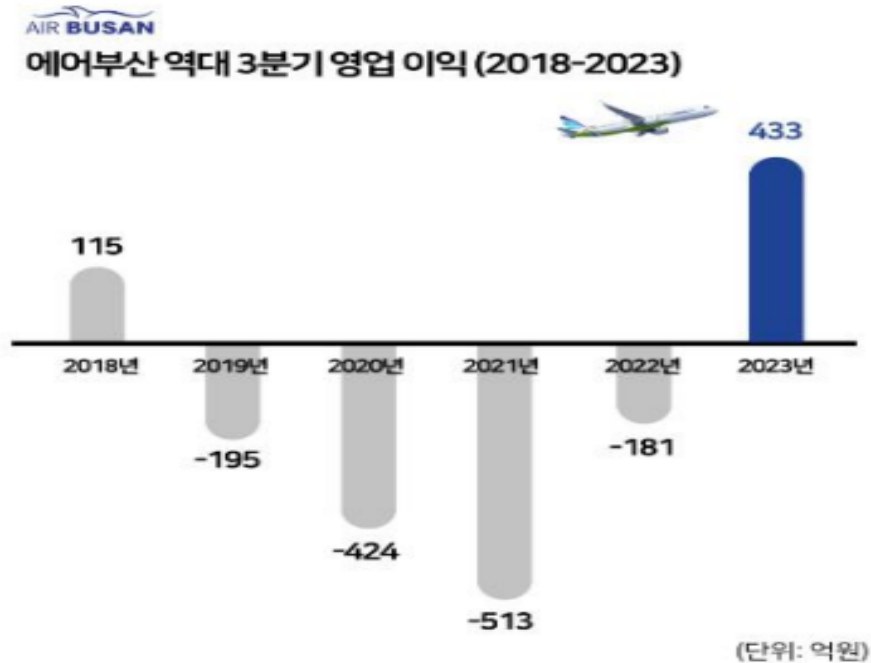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EU 집행 위원회에 이사회 결과를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오늘 중 전자 문서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시정조치안에는 EU가 제기하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4개 노선 슬롯 이관을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분을 분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는 대한항공이 1500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5000억~6000억원대 저금리 지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부분 매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방안 또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EC의 기업결합 승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반드시 EC가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남아 있다. 대한항공이 독과점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4개 유럽노선의 이전은 물론 화물 사업부의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7. 에어부산 3분기 매출 2305억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참고자료 - 에어부산 역대 3분기 영업이익(2018~2023년)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이 26일(목) 오후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3년 3분기 기준 매출 2,305억 원과 영업이익 433억 원, 당기순이익 15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1,177억 원) 대비 95.8% 증가한 수치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또한 모두 흑자 전환했다.

올해 들어 호조세를 보여왔던 여객 수요 회복 추세가 3분기 성수기 시즌을 맞아 탄력을 받았다. 기존 에어부산의 주력 노선인 일본 노선이 꾸준히 호실적을 거두며 이를 견인한 가운데, 중화 노선과 동남아 노선 또한 안정적인 뒷받침을 했다.

더딘 수준이기는 하나 중국 시장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상용 노선인 부산-칭다오 노선의 꾸준한 수요와 더불어,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 단체관광 허용도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3분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공급 면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지만, 탑승률 자체는 당시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15일부터 중국 유명 휴양지인 부산-싼야(하이난) 노선에도

복항한다.

3분기 에어부산의 하늘길 확장도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3월에 주 4회 스케줄로 복항했던 부산-가오슝 노선을 7월 1일부터는 3회 추가 증편했고, 7월 25일부터 부산-마카오 노선에도 복항하며 중화권 노선을 추가로 넓혔다. ▲부산-치앙마이 ▲부산-마쓰야마 ▲부산-비엔티안 ▲부산-보홀 등 다양한 노선의 부정기편 운항도 활발히 이어갔다.

지난달 27일에는 누적 탑승객 7천만 명 돌파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해공항 여객 점유율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지난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인천발 노선들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에어부산은 지난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인천발 노선에 신규 취항했으나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항을 지속하지 못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타 경쟁사 대비 항공기 기단 규모 등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도 에어부산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항공기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면서, "항공시장의 리오프닝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룬 올해 에어부산의 성과는 분명 질적으로 차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 1분기 매출 2,131억 원, 영업이익 478억 원, 당기순이익 157억 원으로 창사 이래 분기별 최대 매출과 2019년 1분기 이후 16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고,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에도 매출 1,983억 원, 영업이익 339억 원, 당기순이익 15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해외 뉴스

8. 태국, 5개 항공사 신규 허가...내년부터 상업 운항 예정



태국에 5개 신규 항공사가 출범해 내년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26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CAAT)은 리얼리쿨 항공, P80 항공, 파타야 항공 등 5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항면허를 발급했다. 이들 회사는 추가로 항공운항증명(AOC)을 받으면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리얼리쿨항공은 내년 1월 AOC를 취득해 2분기부터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초기 2년간 에어버스 A330-300 여객기 4대를 투입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노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파티 사라신 리얼리쿨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국책항공사인 타이항공과 경쟁하지 않을 도시 위주로 취향해 태국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리쿨 항공은 승객 수하물을 숙소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취향할 P80 항공은 8~9개월 이내에 AOC를

취득해 내년 4분기에 상업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타야 항공은 내년 4분기부터 국내선과 국제선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로 비행한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9. '베트남 최대 민간항공' 비엣젯 "한국 취항 노선 계속 확대"



베트남 최대 민간항공사인 비엣젯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취항 노선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엣젯 영업 담당 부사장인 제이 엘 링게스와라(Jay L Lingeswara)는 24일(현지시간) 호찌민 본사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한국은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청주와 제주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에 취항을 시작한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은 현재 국제선 75개, 국내선 45개 등 총 120개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매일 운항하는 항공편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쳐서 총 468편에 달한다. 한국 시장에는 2014년에 처음 진출했으며 현재 양국을 연결하는 노선은 14개에 달한다.

인천~하노이·호찌민·다낭·하이퐁·나짱, 푸꾸옥·달랏, 껀터 등 8개 노선과 부산~하노이·다낭·나짱·호찌민·달랏을 비롯해 대구~다낭 등 총 14개 노선을 운항하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258만4천840명에 한국에 들어간 베트남인은 30만3천230명에 달한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부산~푸꾸옥 구간을 취항해 양국 간 노선을 15개로 늘릴 예정이다.

링게스와라 부사장은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740만명에 달하고 주당 300회가 넘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내에 다양한 취항지를 두고 운임을 낮춰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엣젯 고객들은 베트남을 경유해 동남아시아와 호주, 인도 등 여러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엣젯은 방콕, 푸켓, 치앙마이, 발리,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홍콩, 대만에도 취항하고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10. "한국은 최대 인바운드 시장"...홍콩관광청, '헬로 홍콩 2.0' 캠페인



홍콩관광청은 팬데믹 이후 기지개를 켜 홍콩 관광에 더 깊이 있는 관광 요소들을 가미한 '헬로 홍콩 2.0' 캠페인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홍콩관광청은 이날 낮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캐세이와 여행·레저 이커머스 플랫폼인 클룩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홍콩관광청은 기존에 사랑받았던 미식과 쇼핑을 동반한 도심 투어뿐만 아니라 팅차 우섬, 라마 섬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홍콩 아웃도어 여행지와 팬데믹 기간 업그레이드된 홍콩을 보여줄 예정이다. 홍콩은 올해 초 모든 여행 제한을 해제하고 '헬로 홍콩' 캠페인을 쏘아 올리며 전 세계 여행객에게 홍콩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홍콩공항공사의 주관하에 전 세계 50만 장의 홍콩행 무료 항공권을 배포한 '월드 오브 위너스'(World of Winners) 캠페인을 비롯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홍콩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달하며 회복의 기반을 다졌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